

## VIII. 의 사 록



### 1. 개회식

사회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회 : 양측의 단장단이 입장하고 계시네요.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양측의 단장단들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일경제협회에서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석승입니다. 이틀간 사회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호텔 밖의 여러 가지

시위 상황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병력들의 배치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꼭 참석하셔야 될 회장단들 몇 분께서 그로 인해 쉽게 호텔에 접근을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측 대표단이 입국하셔서 바로 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을 예방하였고 그 다음 박진 외교부 장관님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 자리에 지금 임석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미니스터시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님도 예방을 하였습니다.

올해 회의가 55회입니다. 1969년 이래 한 해도 쉬지를 앞왔는데 이러한 중요성 및 힘을 예방 받으신 모든 주요 인사들께서 강조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장님을 소개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잠깐 뒤를 보고 일어나셔서 목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 측 단장이신 한일경제협회 김운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셔서 뒤를 보고 목례만 해 주시죠.

다음은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셨습니다.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측 기조연설을 해 주실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시죠. 사이키 아키타카 현 미쓰비시상사  
이사님이십니다.

다음 한국 측의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통상장관  
이라고 호칭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시죠. 안덕근  
본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 측의 기조연설을 맡아 주셨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님 임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협회 고문이시고 또 LS이사회 의장  
이시며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구자열  
회장님께서 임석하셨습니다. 뒤를 보시고 인사만  
드려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지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을 한 장 남기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먼저 제가 존함을 호명하면  
앞에 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줄로 사진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무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스무 분이 넘는 귀빈을 모시고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앞줄과 뒷줄 구분해서 한 분 한 분  
순서에 따라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본의 귀빈을 모실 때 간단  
하게 일어로 여쭙고 호명하여 무대에 올라와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념사진 촬영)



먼저 제 1열에 모시겠습니다.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덕근 산업부의  
트레이드미니스터 통상교섭본부장님 단상에 모십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손봉락 TCC스틸 회장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측입니다.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보시  
코이치 특명전권대사님, 사이키 아키타카 전 외무  
사무차관님,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님, 우에다  
카츠히로 오오가키정공 회장님,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  
홀딩스 명예고문님.

다음 뒷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님 모십니다. 이휘령 회장님께서 아직 도착을  
못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님 앞에 모십니다.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님  
모십니다. 류두형 한화 사장님 앞에 모십니다.

다음은 일본 측 일간공업신문사 이미지 하루히로  
사장님, 도레이 무라야마 료 고문님, 이휘령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호텔 오쿠라도쿄 나루세 마사하루  
회장님, 마루베니의 쿠로이시 쿠니노리 고문님, SJC의  
이구치 카즈히로 이사장님.

그럼 이상 여러 귀빈을 모시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부탁드립니다. 조금 포즈를 취해 주시거나 미소를 지어주셔야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포즈라도 취할까요? 박수를 치시든가 손가락 표시를 하시든가 뭔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막을 내리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그러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사진 각도와 자리를 조정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듯 싶네요. 사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포즈 부탁드립니다 이제 끝낼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귀빈들께서는 이제 내려가셔서 착석 부탁드립니다. 계단이 있으니깐 조심들 하시죠.

오늘 일부러 멀리서 오신 대표단 분들이 계시고 지금 막 들어오신 김덕길 회장님도 계시네요. 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빈들께서 다 착석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1969년 이래 양측 회장님들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하시겠습니까. 마는 단 한 해도 쉰 바가 없었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회의를 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게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양측 단장님의 인사말씀부터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주최측인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개회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윤 회장님 등단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 단장께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 (1) 개회인사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입니다. 아이보시 코이치 특명전권대사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상사 이사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 양국 대표단 여러분, 몇 년간 전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4년 만에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양국 경제인들은 69년 이래 한 해도 회의를 거르지 않았고, 그간 양국 정치, 외교 분야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경제인들은 신뢰와 소통, 협력을 이어왔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전통을 양국의 정상들께서도 경제인들과의 만남 시에 높이 평가하시면서 향후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서툼 정상회담 재개 및 한일 여러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로 한일 관계는 다방면에서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는 공급망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서로 보완하면서 세계로 함께 달려가야 하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세월에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신뢰에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하루 빨리 복원하고 오직 미래만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간의 미래는 결코 누가 이기거나 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 속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한일 경제 협력은 비단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우수한 장점을 살려 협업을 해나간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에게는 일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이틀간의 회의에서 이러한 여건이 꼭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번 회의의 주제처럼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현역인 우리들 자신이 개척해야만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장년이 된 우리가 그간의 경륜을 살려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메가 FTA 협력 및 한일 간 경제안보의 강화, 제3국 공동진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전보장, 탈탄소 추구 등 과제가 많습니다. 디지털, 그린 성장 등의 신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래에 대처하고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재와 문화 교류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더욱 돈독히 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에 개최될 오사카 박람회의 큰 성공을 기원하고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김운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 단장이신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개회사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측 단장이신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 단상에 모셔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께서도 지난 13년간 일한경제협회와 재단을 이끌고 계시고 또 한일축제한마당의 실행위원장도 함께 맡고 계시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 측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특명전권대사님 그리고 일본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측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4년 후인 1969년 제1회 회의가 개최됐고, 이번에 기념비적인 제5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한 번도 중단 되는 일 없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양국 경제계의 여러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이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5월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일, 그리고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은 드디어 거의 종식되었으며 일상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 최악이라 일컬어진 한일 관계도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발표하시고, 그 후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신 것을 계기로 12년 만에 서틀외교의 재개, GSOMIA 정상화, 수출 절차도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양국에서 추진되는 등 개선을 위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단(英斷)과 한일 양국 정부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한일 관계인데, 이 한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점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원과 에너지 가격 급등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분단과 대립, 기존과는 다른 관점의 공급망 재편에 내몰리는 등 한일 경제계는 이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가 극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인들은 이 회의를 통해 이틀 동안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인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제 1세션에서 다룰 경제 연계 확대를 위해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주변국, 그리고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는 공통적인 과제도 많아서 서로 연계 협조, 상호 보완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윈윈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제2세션의 상호 교류 증진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양국 노력으로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인들은 더욱더 폭넓게 교류하고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 결속을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서 양국 관계를 지탱하여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 서울에서 이틀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할 수 있는 길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회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사사키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양측 단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꼭 채워주신 참석자 중에는 원로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 젊은 세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한일학생 미래회의의 젊은 인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이끌어야 될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양국 정부 대표의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측의 트레이드 미니스터, 안덕근 통상 교섭본부장님 단상에 모셔서 귀한 말씀 청합니다. 안덕근 본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 (2) 내빈인사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존경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님, 사이키 아키타카 미쓰비시 상사 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계 간 대표적인 교류 행사로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시작된 이래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회의는 양국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고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 상황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으자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께서는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뜻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간 경제계의 교류가 힘차게 부활하고 있다고 적극 호응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는 대통령께서 한일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을 직접 만나시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정부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끊임없이 협력의 기반을 닦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난해 5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양국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네 가지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국은 공통으로 당면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50 탄소 중립 이행에도 함께 노력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여 협력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은 양국이 각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협력의 여지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은 협력의 범위를 제3국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디지털 전환 등 전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있어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도국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양국 기업들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제3국과 전 세계의 공동 발전도 견인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우호 협력의 훈풍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도록 경제계 간 교류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께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25년 전에 강조한 젊은 세대 간의 교류는 한층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질곡의 시간을 견뎌온 한일 양국은 2년 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이 열린 만큼 다가오는 새로운 60년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서 양국의 상생을 위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안덕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은 공개되는데 오늘 특히 안덕근 본부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 대표 모시고자 합니다. 아까 안덕근 본부장께서 어제 일본 대표단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예방 하였다고 다시 언급하셨는데 지금 모시는 아이보시 특명전권대사님께서도 동석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들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님께서 얼마나 한국말을 잘 하시는지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사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아이보시 코이치(相星 孝一)**  
**주한일본대사**



오늘은 일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일 양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귀빈 여러분, 4년 만이네요. 대면으로 이 회의가 개최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매해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실로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여러 선배님들이 일관되게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월 16일부터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양국 간의 총리의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정상 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렇게 빨리 셔틀외교가 실현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대통령께서 방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방문을 연속해서 준비하고 실현했다는 점은 저의 외무성 인생이 40년 이상입니다라는 정말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서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 그리고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경제 안전보장협의회 개최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수출 관리에 있어서 한국을 그룹A로 추가하는 절차의

개시 등 폭넓은 정부 간 대화 및 구체적 대응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공급망의 강화 등 다양한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윤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 7개 단체 수장들 그리고 일본계 기업의 관계자 분들과의 의견 교환도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열렸습니다. 일한경제에 있어서 산업 협력을 추진 중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총리께서 직접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경제인분들로부터는 공급망의 강화, 첨단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의 추진,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등 앞으로의 한일 양국 관계의 더욱더 큰 발전을 위한 기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계에서의 협력으로는 3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경단련과 전경련이 창설을 표명했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한일 일한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지난주 10일이었나요? 양국 단체가 이후에 구체적인 대응을 발표를 하는 등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 기존의 '노 재팬(No Japan)'에서 지금 '예스 재팬(Yes Japan)'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한일 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점은 차치하고라도 올해 들어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현재 한국에서 관객 동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말에는 3개월간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을까요? 마쿠하리멧세라는 회장에서 한국 최고의 문화제전인 K팝과 관련된 페스타, 저도 이 명칭이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K팝과 한국의 생활 체험을 함께 모은 KCON이라는 페스티벌이 2012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은 12만 명 이상이 방문

하였고 사상 최대 관객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에 아소 부총재가 귀국하실 때 제가 김포공항에 환송을 하러 갔는데요. 그 비행기도 한국의 연예인과 그 팬들로 가득해서 비행기 출발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한일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국 정상의 서틀외교의 재개를 계기로 더욱더 양국의 인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한일경제인회의가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아이보시 코이치 특명전권 대사님께서 일본의 여러 문화도 한국에 깊게 전파되고 있어서 특히 만화를 중심으로 '슬램덩크' 또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변화가 지난 3년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4년 만에 대면할 때 양국 일한경제 협회, 한일경제협회 회장단 임석하고 계시고, 아까 기념 촬영을 같이 하신 귀빈들 이외에도 많은 회장단을 일일이 소개하면 너무 길어질 만큼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일측에도 많은 임원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님의 인사말씀에 관련하여 꼭 한 분 허락 없이 소개를 하고 갔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한일본대사관에 경제 관련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나미오카 다이ске(浪岡 大介) 경제공사가 계십니다. 이 자리에 대사님 모시고 잠깐 일어나서 뒤를 보고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공사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들 한국 경제인들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회를 진행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귀한 기조연설을 청해 들을 텐데 기조연설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측의 기조연설자이신 사이키 전 사무차관님도 그렇지만 한국의 기조연설자이신 손경식 회장님께서서는 동남아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귀국하셨습니다. 이런 바쁜 일정으로 한일경제인회의에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는 귀빈들께 특히 손경식 회장님은 아침에 귀국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나와 계시니까 내빈들 퇴장하시기 전에 양측 단장들 또 손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기조연설단께 큰 박수 한 번 다시 보내주시고 자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조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워낙에 상황이 바쁘신 귀빈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장내를 정리하고 너무 바쁘신 내빈들께서 퇴장하실 기회를 잠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임석해 주셨던 내빈들 퇴장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귀한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내빈들 퇴장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55회 경제인 회의가 아주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어서 양 협회 사무국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귀빈들 퇴장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럼 특별한 휴게시간 없이 귀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한국 측의 기조연설자 모시겠습니다. 말씀 올린 것처럼 손경식 CJ 회장님 이십니다. 연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건강하시다는 말씀만 올리겠고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오래 역임하셨고 지금 한국경총의 회장님 이십니다. 또 한일축제한마당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 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경제 원로시고 말씀 올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귀국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손경식 회장님 모십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2. 기조연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입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양국 경제인들과 귀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일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가 4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개최가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일경제인 협회 김윤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측 기조 연설자이신 사이키 아키타카 전 외무차관님께도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평화와 국제질서의 안정은 인류와 자유와 변형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날이 커지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거부한 채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0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제조와 핵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해서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위협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평화의 한 축이었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중국 간 전략적 경쟁과 대립은 이제 군사 외교 영역을 넘어 무역기술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부상하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대응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통일을 지향하는 중국과 현상을 유지, 확보하려는 대만 간의 대립도 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를 포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개전 후 15개월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안보 불안과 공급망 혼란, 에너지, 식량 가격의 앙등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와는 비교적 먼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여파는 해당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세계 정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 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가 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 즉 자유, 민주, 평화 수호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역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3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님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님께서 양자 차원의 한일 정상 회담을 12년 만에 개최하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기시다 총리님이 한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시행했습니다.

실제 한국 국내에서는 일제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언급 없이 양국 관계의 복원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님께서 용단을 내려 양국의 관계 회복을 실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담들은 앞으로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구축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낸 한일 관계의 복원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번영과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동북아,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전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한일 양국은 아시아에서 2개국밖에 없는 OECD 회원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양국 차원을 넘어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등 세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동북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 및 안보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급격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당면한 많은 경제적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통해서 경제 협력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한국이 공업화에 성공하고, 제조 강국이 된 것도 일본 기업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양국 간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한일 양국이 각각 세계 10위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교류가 위축되고 외교 현안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일본은 한국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3위 수입국으로서,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이자 제4위 수입국으로서 상호 교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 체제의 긴밀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여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오랫동안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고 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반제품을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한 후 그 곳에서 완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국가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는 국제 분업 체제가 선순환 발전을 해왔고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한 조치들로 인해 양국 간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이 위축됐고, 심지어 반일과 혐한 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양국 교역과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속한 기술 진보, 다양한 신산업들이 태동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 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글로벌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신기술이 더 빠르게 개발되고 융합되면서 세계 경제도 급속하게 변해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도 이러한 변화와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양국은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상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경쟁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풀기 위해 일본 정부와 재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실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주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보다는 자국 이익을 중시하려는 보호무역주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같은 블록화, 그리고 미국이 안보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설비 증설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진영이 강조되는 경제·산업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된다면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교역을 통해 성장해 온 한일 양국의 커다란 위기가자 기회이며, 양국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류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양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간다면 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같은 제조업에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제조업 부문은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은 일본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이 이러한 강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비롯해 AI,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에서 투자,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첨단 산업을 함께 주도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의 WTO 제소를 취하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강점을 서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후 한국의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한일 관계는 함께 같이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시대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일본은 RCEP, IPEF 같은 경제 협력 네트워크에 동참했고, 한국은 최근 CPTPP 가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서 앞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의 경제인들도 앞으로 기대되는 이러한 기회들이 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EU,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에서 많은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양국 간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양국 관계가 경색될수록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며,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우애 정신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앞으로는 한일 양국이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양국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 한일 교류와 협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영화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K팝이 일반 음악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이미 서로의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정도로 친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한일 최대 민간 교류 행사인 한일 축제 한마당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양국 국민들, 특히 양국 청년 세대들간의 마음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청년 세대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일 양국을 오가며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경제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서 우호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강구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은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와 번영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더 빨리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의 협력적 우호관계를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양국 정부와 경제인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의 발표를 끝낼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내외 귀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가 양국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경제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곧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일본 측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 존경하는 손경식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새벽에 동남아에서 바쁘게 귀국하셔서 경제인회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놀라운 열정에 새까만 후배로서 건강하심에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 번 깊은 사의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측 기조연설자 모시겠습니다. 사이키 아키타카 전 외무성 사무차관께서는 선배 외교관 이시조. 또 이 자리에 임석해서 사진촬영을 해 주셨던 유명환 전 장관님, 신각수 전 대사님 등과도 매우 긴밀하고 밀접한 업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77년에 외무성에 입성하셨다고 하니까 아이보시 대사님보다 조금 선배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 총리대신 시절에 비서관도 역임을 하셨고, 주미대사관 공사, 그 다음에 주 인도 특명정권대사를 거쳐서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미쓰비시상사의 이사를 맡고 계시지만 워낙에 다양한 경력을 역임 하셨기 때문에 통찰력 빛나는 귀한 말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키 전 사무차관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 昭隆)

미쓰비시상사(주) 이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사이키입니다. 우선 먼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제한이 이제야 완화되어 참으로 오랜만에 이와 같은 형태로 회의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5회라고 하는 매우 뜻 깊은 회의에서 기조강연의 중요한 소임을 저에게 주신 점에 대해서 주최자인 한일경제협회 그리고 일한경제협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 참가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서 저보다 먼저 손경식 회장님께서 매우 훌륭하고 또 포괄적인 내용의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과 한국,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냉전’ 시대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불과 30년 정도만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국제 정치와 경제의 중심은 다극화 되었고 또 안타깝게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사회를 크게 불안하게 만든 폭거로 인해서 국제질서가 크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의 행사로 인한 이웃 나라에 대한 침공은 영토 주권의 침해와 인권 침해 등 국제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러시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모험주의적인 침략으로 국제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인근 지역에서도 매우 폭력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두 종류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의한 핵 개발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또 중국에 의한 패권주의적인 군사력에 의한 위협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예전에 그 사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 정세, 지역 정세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일 양국 정부 간에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실은 5년 전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도 제가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백미러를 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관계 개선의 이니셔티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한국 측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올해 3월 1일,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큰 한 발짝을 내디디고 일본 정부도 즉각 이에 부응하는 형태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16일 일본을 방문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달 7일부터 8일에 걸쳐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입니다. 앞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약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된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현재 국제 환경과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한일 양국이 공유해야 하는 대국을 내다보고 관계 개선을 가속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린 전략적 결단은 양국의 각계 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협력, 미래 지향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창설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만 저는 이 발표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현재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서로 협력해서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일, 또 다자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이 있을 터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양국 정부가 각각의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1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그와 함께 제2외국어로서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제2 외국어를 9개 언어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중에 일본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 이토록 가까운 관계인만큼 젊은 세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좀 더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제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의 교환 유학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대학에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한국으로 유학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대 조치 같은 것들을 강구하여

제도적 채택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국의 재계에 바라고 싶은 것인데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졸업여행, 수학여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여행을 할 때 양국을 방문할 기회가 혹시 된다면 자금 면에서 지원을 검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멀티 즉 다자 간 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2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법의 지배, 즉 국제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저희가 함께 강조하고 호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 개도국이 그룹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정부와 재계가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협조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기시다 총리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히로시마로 초청해서 한일 양국이 함께 대응해가야 하는 다양한 중요 과제에 대해 대통령과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의 결단에 의해 진전되고 한일 양국 정부 간에 만들어진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 모멘텀을 제대로 확보해서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보다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이번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활발하고 뜻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큰 성과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다소 간단하긴 합니다만 저의 기초연설을 끝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사이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존경하는 손경식 회장님과 사이키 전 외무사무차관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조금 전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두 분 기초연설자가 공통으로 언급을 해 주셨고, 조금 전 사이키 이사님께서서는 양국의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물론 사건임을 전제로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어와 일어를 공립학교에서 서로 가르치면 어떻겠느냐, 또 수학여행을 서로 가고자 할 때 물적, 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대 조치가 강구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인회의에 중요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삼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보시 코이치 특명전권대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마는 바로 얼마 전에 기시다 일본 총리대신께서 방한하셨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손경식 회장님, 구자열 회장님 또 경제 6단체장과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경제 원로 리더들과 간담회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양국의 경제인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기시다 총리대신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음을 사무국으로서 보고드립니다. 양측 기초연설자께 다시 한 번 손경식 회장님, 사이키 전 사무차관님 잠깐만 일어나셔서 큰 박수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양 단장님의 개회인사 말씀도 저희들 경제인회의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장입니다마는 특히 각별하게 모신 기조연설자의 귀한 말씀은 저희들이 기록용으로도 앞으로 참고해서 나가는 방향의 제시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산업무역회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인회의의 전초로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바쁘신 분들이 나가시네요. 진옥동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신한외의 진옥동 회장님 너무 바쁘셔서 빠져나가시지만 정준명 고문님과 더불어서 한국 국적자로서는 오랫동안 일본에 체류하시면서 애써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신산업무역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양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경제인 회의의 전초적인 회의라는 성격도 약간은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체어맨을 맡고 계신 분은 무역협회 정만기 상근 부회장님과 아소 유타카 일본 측 체어맨님이십니다.

정만기 부회장께서 방금 도착하신 상황이라서 제가 책자에 있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아소 유타카 회장님의 말씀부터 잠깐 청해 듣고 그 다음에 한국의 순서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먼저 일본 측 체어맨을 맡고 계신 아소 유타카 회장님 모십니다.

회장님은 소개가 필요 없으신 원로신데요. 아소 그룹을 이끌어 오심과 동시에 큐슈경제연합회 회장님을 오래 역임하셨고 지금 명예 회장님이시고, 또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직을 18년 동안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산업무역회의를 2004년부터 근 20년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항상 솔직하고 힘 있는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아소 유타카 회장님 존경심으로 모십니다. 회장님 말씀 청합니다.



###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결과 보고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 회장



방금 소개받은 아소입니다. 지난 3월 신산업무역 회의에 이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뵈 수 있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3월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그 2주 전에 5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무르익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큰 화제가 되어 긍정적이고 대단히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7일에는 기시다 총리님이 방한하셨고, 두 달 만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서 안보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는 것, 또 미래 세대 교류 확대, 굳건한 반도체 공급망의 교류 및 구축 확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등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양 정상에 뜻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한일 국민들에게도 좋은 뉴스이고, 이 계기를 만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강한 힘과 의지를 느끼며, 또 미래 지향적으로 리드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비즈니스 측에 있는 저희들의 책임도 느낍니다.

그러면 제23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제1 세션 주제는 한일 경제 연계의 확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JETRO 서울사무소의 마에카와 나오키(前川 直行) 소장님께서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라는 주제로 한일을 비교하고 발표해주셨습니다.

비교 내용은 먼저 양국 모두 스타트업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에 큰 차이는 없지만 한편 유니콘 기업과 이익, 수익 면에서는 한국이 더 큰 결과를 내고 있으며, 창업 기업 수는 한국 쪽이 훨씬 많고 기업가 정신도 한국이 더 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도쿄 외에 지방 에코시스템 육성이 중요해지고, CVC도 더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는 대학發 벤처에 특화해서 육성해 온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양국의 과제로서는 벤처 투자의 유니콘 기업수에 있어서 양국 모두 글로벌 존재감이 아직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교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아직 현재는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서로의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에코시스템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수익,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교류를 증진시키는 제안도 있었고, 또 활발한 양국 간의 왕래를 활용하면 도쿄, 서울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과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교류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ETRO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1 세션의 질의응답 때에는 주로 한국 측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가능성과 필요성, 미래성에 대해서, 또 그 경우 한일 양국 간의 FTA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발표자이신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님으로부터 장점과 단점 등 여러 각도에서 해설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양자 간의 FTA 체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한일 상호 교류 증진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誠) 소장님으로부터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 자치단체이어서 가능한 것’이라는 주제로 지역을 하나의 나라처럼 보면서 지역이니까 할 수 있는 외교가 있다는 개념과,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재 육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시즈오카현이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 중국과의 지역 간 교류의 상황과 또 조선통신사라는 키워드,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한일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즈오카현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정부 간의 대립 구도에 대해 중용을 지킬 수 있고, 그러한 자세를 중시하는 도도부현민을 키우는 것이 자치단체의 기본자세로서 중요하다는 자치단체로서의 입장에서 교류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2세션의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해서는 지역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학문이라는 공통적인 분야를 가지고 자유롭게 대학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과 함께 한일 각지에서 취득한 자격을 상호 인정하면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로도 이어져 해외에서 취업이 더 활성화된다는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한일 양국은 모두 자원을 갖고 있지 않고 식량 자급률도 대단히 낮다는 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AI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분야 등 대화하고 또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와 과제가 많다는 것, 또 제3국에서의 한일 연계 협업에서 여러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더욱더 추진하자는 것, 그리고 청소년 간의 교류 역시 여러 역사가 있으며 이를 더욱더 증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 같은 의견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일 양국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 확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부터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현재 정식 개시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인 한일 셔틀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결정, 발표하였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는 방침을 결정해서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검토된 한일 셔틀외교가 실현된 것으로 또 두 달 만에 지난주 서울에서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는 히로시마 서밋, 히로시마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양국 간에 놓여 있던 다양한 문제가 확실하게 하나하나 전진하고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산업무역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등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타이밍을 최대한 잘 살려서 지난 3월 신산업무역회의의 논의를 더욱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양 정상의 영단을 이어 이 모멘텀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20년간 신산업무역회의의 체어맨을 역임해 오셨습니다. 경제인회의 양 단장님의 개회사 또 기조연설에서도 언급된 한일 일한관계의 급속한 우호의 증진 또 모멘텀이라고 표현되는 격동기와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아소 유타카의 형님 되시는 아소 타로 전 총리께서 최근 방한하셔서 대통령님을 뵈었을 때 한일관계의 우호증진에 아소 타로 전 총리께서 다대한 역할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공유드리고 이 자리에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손경식 회장님 또 청중석에 회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와카이 슈지 선배님과 같은 인생의 대선배님도 계십니다. 저는 아소 유타카 회장님 뵈 때마다 저보다 10년 정도 연상이신데 10년 후에 저런 힘 있는 목소리를 제가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소 회장님의 열정 그리고 리더십 늘 감탄하면서 저희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겠고, 신산업무역회의에서 거론된 상당한 내용이 저희들 내일 폐회에 앞서서 공동성명에 담을 안에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측 체어맨 모시겠습니다. 한국 측 체어맨으로 지난 3월에 애써주신 분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이십니다. 정만기 체어맨께서는

공직 들어오셔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역임하셨고, 1차관 역임하셨고 그 이후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같은 시기 오랜동안 저 자신도 정만기 부회장님과 더불어서 경제 관료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만기 상근부회장 체어맨께서 무역과 산업에 정통하신 분인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만기 체어맨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만기입니다.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의 한국 측 발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산업무역회의는 코로나19로 서울과 동경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개최됐었는데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된 제23회 회의에서는 아소 유타카 일본 체어맨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한국 측 57명, 일본 측 26명이 참가해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는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일 경제계 전문가 회의로서 1세션에서는 한일 경제협력 방안, 2세션에서는 한일 상호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축사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경제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였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협력 강화, 자원무기화에 따른 공동대응, 탄소 중립 이행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한일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1세션에서는 이창우 국회FTA일자리센터장께서 ‘메가 FTA시장 초국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장은 먼저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탈세계화 등에 의한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FTA 생태계가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강력한 국제 연대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FTA 체결을 지속하고 있다는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FTA 체제에서 RCEP과 같은 메가 FTA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다자 FTA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센터장은 기업들도 RCEP이라든지 CPTTP 등 다자 FTA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역 규범 통일, 생산요소 표준화, 공급망 통합, 무역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효과 제고 등 메가 FTA 특성을 잘 활용하는 초국가적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수출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한 FTA 자문관 비즈니스 모델을 일본 시장은 물론 RCEP 전체 시장의 모범 사례로 공유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 경제 협력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그동안 보류되었던 한일 FTA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2세션에서는 천경파 와이즈 포레스트(주) 대표이사께서 '재일 한국인 유학, 취업, 창업으로 본 한일관계'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일본 유학생생활을 포함한 일본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긍정적인 사고로 다양한 장르의 비즈니스에 대한 어프로치가 가능했고, 그로 인해 폭넓은 장르에 대한 기본 상식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자신의 일본 유학을 포함한 생활과 비즈니스 경험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본 유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난 80~90년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학과 선택과 졸업 후에 일본을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41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는 꾸준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일학생미래회의 등과 같은 한일 청년단체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인재, 인간상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양국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션 발표 종료 후 자유토론에서는 한일 FTA를 재검토하기 위한 민간 여론 수렴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장점을 살려서 제3국 진출 협력과 미래 경영 활동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류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글로벌 소싱 등 국제적 협력 사업 현실화 등 양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각 경제단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협력 아이템을 논의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기술에 빨리 접근하는 한국 기술의 상품화 역량과 고객 우선을 장점으로 하는 일본 기업 간의 협력,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일 공통 과제로 자원과 식량 부족, 지구 환경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등에 현역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양국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일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제 경색된 국면을 극복하고 급속히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이번 5월에 양국 정상외교가 12년 만에 본격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정말 정상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으며, 한일 재계는 최근에 미래 청년을 위한 미래 세대 기금을 창설하는 데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은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기업인과 경제인들도 적극적인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미세한 경기 변동에도 서로 영향을 받는 상호보완적 이웃입니다. 경제 문제 외에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도시 쇠퇴, 중소기업 인력난과 같은 사회 문제마저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논리가 주도하는 보호주의와 경제 블록의 이합집산 여정에 직면해 있지만, 한일 양국은 그럴수록 인접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많은 한일 경제인 분이 모이신 자리인 만큼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입니다. 지난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IT, 디지털 투자 부진에 따른 '디지털 패전'이 일본 서비스 분야 경쟁력 상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한국과 협력한다면 일본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 IT 인프라 노후화와 기술인력 퇴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좋은 협력 대상은 인력, 기술력을 보유한데다가 근거리에서 위치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한국무역협회는 지난주 도쿄에서 일본의 학교법인 카나이학원 및 전자정보 추진 컨설팅 기업인 이코포레이션닷컴제이피사와 IT 교육 제공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가 보유한 우수한 IT 강사진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증가하고 있는 일본 청년들의 IT 교육을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의 협력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전환 협력입니다. 2050년까지 탈탄소화 사회 및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 이상, 그리고 화석원료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한국과 완전히 유사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일본의 그린 성장 전략은 한국의 그린 뉴딜과도 유사합니다.

한일 양국은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외교를 협력적으로 해나가면서 표준 수립 등에서도 노력을 해 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입니다. 2021년 기술무역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는 3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는 미국이 102억 달러로 30.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18억 달러로 5.2%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기술 면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의 생산 기술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양 나라가 협력을 해나간다면 기초과학은 물론이고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양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한일 양국은 기술 표준 확립이라는 협력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SK텔레콤은 일본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와 공동으로 6G 공통 요구 사항과 5G 기지국 전력 절감을 위한 기술 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 경험이 축적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희토류 대체 기술입니다.

희토류 자원무기화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정은 확산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2011년 일본 연구팀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전기차용 자성물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였고 한국도 작년에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현재 산업에서 사용되는 상용 자석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희토류 대체 기술을 공동 개발해 나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술 개발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쯁록 오늘 회의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한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토론과 발표에서 성과 있는 그런 성과물들을

많이 도출해내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3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의 활동에 대한 한국 측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정만기 চে어맨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경제 6단체가 있습니다만, 무역협회는 굉장히 큰 기관인데 오늘 우연히도 경제인회의가 너무나 중요해서 구자열 회장님, 정만기 상근 부회장님 두 분이 함께 긴 시간 자리하고 계십니다. 무역협회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잠깐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잠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오늘의 개회인사 또 내빈의 축사 신산업무역회의의 두 분 চে어맨의 말씀이 지금 끝난 상황이고 경과보고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과보고까지 끝내면 잠깐 복도에서 담화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5시가 넘지 않는 시각에 환영 리셉션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일한경제협회와 한일경제협회 공동 주최가 됩니다.

우선 사무국으로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려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2개의 세션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전 세션의 좌장은 염재호. 전 고려대학총장이시고 현재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 태재대학의 초대 총장이십니다. 염재호 총장이 좌장 역할을 하시고, 김천주 한국국제규격인증원의 대표이사, 가와다 미오 JETRO 이사님, 박정규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박사, 쿠로이시 쿠니노리 마루베니 고문님께서 오전 세션의 귀한 발표를 주실 것이고, 오찬이 있을 때 공동성명안을 양측의 단장단이 한 번 검토하게 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오후 세션이 1시 20분부터 진행되는데 거기 봐주시면 오후 세션의 좌장은 이데이시 타다시 NHK의 해설주관님이시죠. 한국에서 지국장을 오래 역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박상준 와세다대학 교수님, 마츠우라 아키히로 시즈오카 현의 지역외교담당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십니다.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님은 차기 한일경제학회 회장이시죠. 그 다음은 한국의 해외 경제인들의 모임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신을 하는 SJC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이구치 카즈히로 사장님의 발표가 계속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폐회식이 있게 되고 내일 4시 반 정도에 폐회식이 끝나게 되면 양 단장님을 모시고 공동성명 채택된 이후에 바로 저희들 공동 기자회견까지 이어진다는 보고를 일단 드립니다.

#### 4. 일반경과 보고

그 다음 순서는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가 어떤 일들을 지난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 해왔는가,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또 김윤 회장님 두 분 양 협회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서 저희들 사무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 측 사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고 일본 측 사무국의 책임은 지금 우치다 토시아키 전무이사님이 맡고 계십니다. 우치다 토시아키 전무이사님 어디 계시죠? 일본 측 전무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한 분 더 소개 올릴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고레나가 카즈오 고문님이십니다. 전임 전무이사님이셨고 오랫동안 저희들 일한경제협회에 사무국의 책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51페이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좀 봐주시면 자료로 대체합니다만 거기에는 아까 기초연설 등에

또 개회인사 등에 언급되었던 청소년 교류 한일 학생들의 교류 등등이 있습니다.

신산업무역회의는 양측 চে어맨께서 소상하게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직접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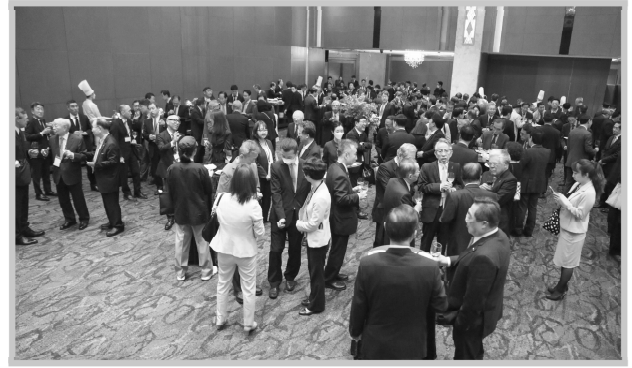
오늘 회의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 55회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양측이 같이 정했지만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논의해야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제목으로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은 지금 말씀드린 여덟 분의 훌륭한 발표를 경청하고 또 훌륭한 좌장을 모시고 질의토론을 하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는 빠짐없이 9시 전에 착석해 주시기를 사무국으로서 다시 한 번 권유를 드리며 오늘 4년 만에 개최되는 55회 경제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임석해 주셔서 사무국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잠깐 담화 나누시다가 다음 리셉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더 활약을 하겠지만 호텔 측, 저희 부회장이신 신동빈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성의를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내일도 다시 한 번 거론 하겠습니까마는 뒤에 보시면 훌륭한 통역 두 분이 저희들 회의를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김혜원, 이정남 두 분 통역이 계십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박수와 격려 한 번 보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리셉션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제 1세션

사회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회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무국에서 간단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2일차 본격적으로 좌장님 두 분 모시고 토론이 있게 될 터인데 채널 1번이 한국어, 채널 2번이 일본어입니다. 다시 한 번 채널의 확인과 음량 조절 부탁드립니다요. 회의 때마다 말씀 올립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션 2개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좌장님을 모시기 전에 간단히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 오늘 어떤 일정으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 번 사무국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염재호 좌장님께 자료를 잠깐 갖다 주시겠습니까, 사무국? 염재호 좌장님께 자료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의 자세한 세션별 소개는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어떤 일정으로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시가 되면 좌장님 모시고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 1세션의 '한일 경제연계 확대'라고 하는 제목 하에 훌륭하신 네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김천주, 가와다 미오, 박정규 박사님, 쿠로이시 쿠니노리 이 네 분의 발표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폐회식 직전에 공동성명안을 의결하게 되는데 그걸 심의하기 위한 회장단의 오찬 간담회 또 참석자 모두와 양측 대표단을 위한 오찬이 진행된 다음에 1시 20분부터 세션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착석해 주시기를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2세션에도 네 분의 발표자가 계셔서 박상준 와세다 교수님, 마츠무라 아키히로,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님, 이구치 카즈히로 한국미쓰이물산 사장님이시자 SJC 이사장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고, 이후 잠깐 공동성명안을 배포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바로 4시부터 폐회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성명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55회 회의를 종결을 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특히 양국 단장님께서서는 기자회견에 임하시게 된다는 일정입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좌장님과 양측의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발표와 많은 토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뒤에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김혜원, 이정남 두 분 훌륭하신 통역의 절대적인 도움이 오늘의 회의를 받쳐주실 것입니다. 통역 두 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잘 부탁 드린다는 인사드립니다.

9시에 맞춰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전의 세션은 '한일 경제연계 확대'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호명을 제가 하고 존함이 불리우신 분들께서는 잠깐 일어

나셔서 뒤를 보고 인사만 해주신 다음에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천주 캐논코리아 대표님이셨고 현재는 한국국제규격인증원의 대표십니다. 인사드리주시죠. 한국 측 두 번째 발표자는 박정규 박사님이십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 한양대학교 교수십니다.

일본 측 발표자 두 분 소개 올립니다. 가와다 미오 JETRO 이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측 부회장이기도 하시죠. 쿠로이시 쿠니노리 마루베니 고문 이십니다.

곧바로 진행을 하겠는데 오늘 좌장으로 모신 염재호 총장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시죠, 스텐 퍼드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한일미래포럼의 대표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언론에도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SK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시고 여러 사회 활동으로 바쁘신데 특히, 출범하는 태재대학교가 국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학기 중에 일본에서도 학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좌장으로 임하시면서 총장님께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주시면 저희 한일경제협회 모든 회원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간단한 소개 말씀 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회의 진행을 염재호 좌장님께 청해서 부탁 올립니다. 좌장님 올라와 주시죠. 다른 발표자들께서도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염재호 좌장님과 네 분의 발표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